

이정협·김영권 골! 골!... 결승 진출 27년 빛장 열었다



아시안컵 준결승 이라크에 2-0 승

55년만의 우승 도전... 31일 오후 6시 결승

한국이 무실점 5연승으로 아시안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27년 만에 밟게 되는 결승무대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정협(상주)과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전후반 상대 골문을 가르며 팀의 결승행을 이끌었다.

전반 3분 기상용(스완지시티)이 명품 크로스로 첫 번째 골 기회를 만들었다. 문전에 있던 한교원(전북)이 타깃이었지만 한발이 부족했다. 잠잠하던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역시 '해결사' 손흥민(레버쿠젠)이었다.

전반 16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몰고 가던 손흥민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오른발로 대포알 슈팅을 날렸다. 발을 떠난 공이 상대 골키퍼 손에 걸리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손흥민의 역습을 시작으로 이라크 진영에서 한국의 거친 공세가 펼쳐졌다.

슈틸리케호의 '신데렐라' 이정협(상주)이 짜릿한 골로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미드필드 지역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김진수(호벤펀)가 키커로 나섰다. 김진수가 원발로 감아찬 공은 그대로 문전으로 향했고, 골 포스트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정협이 순간 뛰어오르며 머리로 공을 받아 이라크의 골망을 흔들었다.

최전방을 맡아 선발 출격한 이정협은 지난 17일 호주와의 A조 3차전에서 A매치 데뷔골 맛을 본데 이어 다시 한번 골을 터트리며 이번 아시안컵의 깜짝 스타로 확실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후반 시작과 함께 무실점 철벽 방어를 자랑하던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이어 전개된 한국 공격이 김진현의 실수를 만회해줬다.

김진현이 페널티박스까지 벗어나면서 공을 견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한국 골문이 잠시 무주공산이 됐다. 다행히 이라크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한국이 다시 공격권을 잡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바로 추가골을 얻었다.

김영권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날린 원발 슈팅이 바운드 된 뒤 이라크의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지만 공이 먼저 골라인을 넘으면서 2-0이 됐다. 선제골의 주인공 이정협은 김영권에게 공을 넘겨주며 도움까지 기록했다.

무실점 행진으로 5연승을 달린 한국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27년 만의 대회 결승 진출이자 55년을 기다린 우승 도전이다. 결승 상대는 27일 오후 6시 대결을 갖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의 승자가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고령·최다 출전

김병지 전설은 진화중

K리그 클래식 24번째 시즌 준비

'기록의 사나이' 김병지(45·전남)의 걸음은 모두 기록이 된다.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의 수문장 김병지가 태극 방목 전지훈련을 통해 24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1992년 9월2일 울산 현대에서 데뷔전을 치른 그는 K리그 최고령 출전 기록과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김병지는 지난해 11월 22일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만44세 7개월 14일의 나이로 골문을 지키며 신의손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2006년에는 신태용 축구대표팀 코치가 보유한 K리그 최다 출전기록(401경기)을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679경기를 뛰며 자신이 세운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다.

K리그 최고령인 그가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나서는 순간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여전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은 그의 세 아들 태백(17), 산(14), 태산(9) 군이다. 이들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축구를 하고 있다.

김병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골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준 다음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도 현재의 김병지를 있게 했다.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 그는 데뷔 이후 출근 78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준비된 체력과 꾸준한 경기력으로 지난 시즌 K리그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기도 했다.

김병지가 앞으로 21경기에 더 이름을 올리게 되면 7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700경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김병지는 "최고령 출전 기록을 달성한 것도 기쁘지만 700경기 출전은 더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K리그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은 자신 있다. 하루는 후배 이종호(23)가 '병지 삼촌, 700경기가 아니라 777경기까지 뛰고 은퇴하세요'라고 말했었다. 정말 777경기까지 한번 뛰어 볼까요?"라며 각오를 다졌다.

“빼기골 받아라~”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준결승 한국 대 이라크 경기에서 한국의 김영권이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